

95.9.30

“여성부 신설” 야권 한목소리

정무2장관실 국감, 총괄기능 필요성 지적...김장관은 유보적

김미경 기자

29일 정무장관(제2)실에 대한 행정위 국정감사는 최근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여성부 신설안에 대해 관심과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여성부 신설을 이미 강령으로 규정한 새정치국민회의쪽 의원들은 이날 여성부 신설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강조해 타부처의 반발 등을 고려해 아예 질의에 나서지 않은 민자당측 의원들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문희상 의원(국민회의)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탄자니아 등은 부처간 여성정책 조정·감독과 노동시장관리 등을 담당하는 여성부를, 독일은 여성관련 입법제안권 등을 갖는 연방여성청년부를 두는 등으로 여성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외국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여성부 신설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물었다.

이어 강철선 의원(국민회의)도 “현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제2)실과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각 원·부·처 사이

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조직이나 예산 체계로는 분산돼 있는 여성정책 기능을 통합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할 능력도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여성부 신설방안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힐 것을 정부쪽에 촉구했다.

국민회의쪽에서는 권노갑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현경자 의원(자민련)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으로 여성의 비중이 커가고 있는 만큼 여성에 관한

제반 정책을 종합적,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 집행하는 여성복지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여성부 신설에 대해 야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날 민자당의 조용직·차화준·이승운 의원은 여성부 신설에 대한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아 세추위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여성부 신설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틀리지 않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여성부 신설에 대해 가장 환영해야 할 김장숙 정무2장관 또한 “현재 정부기구가 기능 위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성별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려면 현실적인 제약점이 많을 것”이라고 답변해 정부내에 부정적 입장이 팽배해 있음을 내비쳤다.